



전은 지역사랑봉사단, 양지노인복지관에 성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이 전주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박춘원 은행장 정원호 노조위원장)은 25일 전주 양지노인복지관에서 지역사랑성금 4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지노인복지관은 신체기능 저하와 만성질환 증가로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운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JB 건강동행 프로젝트 어르신 삶의 변화를 만드는 체력단련 환경 개선' 사업을 제안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성금으로 복지관은 러닝머신과 버터홈 등 노후화된 유산소 및 전신근력 운동기구를 교체하고, 낙상 예방을 중심으로 체력단련 공간을 재배치했다.

복지관은 앞으로 어르신들이 개인별 운동 목표를 설정하고 운동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 건강관리와 사회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달식에는 최상욱 양지노인복지관장, 정원호 전북은행노동조합 위원장 노조 간부 박영기 전북은행 삼천동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지역사랑성금을 활용해 지난 4월 총 6,000만원 규모의 '2026년 지역사랑성금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를 통해 모두 15개 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현재 각 기관에 대한 기부금 전달식을 이어가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은, 남원시에 여름키트 60박스 기탁

남원시(시장 양종모)는 25일,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에서 폭염에 취약한 이웃들을 위해 여름키트 60박스(한가역 3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여름키트는 손선풍기, 여름이불, 보냉백, 팔토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더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저소득 소외계층이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에 기탁된 여름키트는 지난 8월 11일 남원시 관내 읍면동 저소득계층 60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배부하면서 폭염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인포커스 김지운 대표, 임실군에 고향사랑기부

임실군은 (주)인포커스 김지운 대표가 임실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주)인포커스 김지운 대표의 부친이 임실군에 거주하며 평소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온 것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부친이 고향사랑기부금에 참여를 제안하자 김지운 대표가 그 뜻을 흔쾌히 받아들이며 기부로 이어졌다.

(주)인포커스는 종합미디어서비스 기업으로 홍보·마케팅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미디어 전문기업이다.

김지운 대표는 "이번 기부가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임실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본사내방

▲김성아 전주시 공보담당관

전주시 사회복지공무원 첫 박사 탄생

서신동 이주는 동네복지팀장,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취득… 현장 경험, 학문으로 발전

전주시 사회복지 현장에서 24년간 근무해 온 공무원이 현장 경험과 고민을 학문적 연구로 발전시켜 전주시 사회복지공무원 가운데 첫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주민센터 이주는 동네복지팀장이다. 이 팀장은 지난 21일 전북대학교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직 신뢰가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주제로 연구한 논문이 통과되어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팀장은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공무원 개인의 사명감과 노력만으로는 복지행정의 혁신을 이룰기 어렵고 조직이 구성원을 신뢰하고 현장의 전문적 판단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직된 업무 절차와 제한된 권한 실패에 대한 부담 등이 현장의 새로운 시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수평적인 소통과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주는 팀장은 "현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전문적 주제로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준 가족과 동료, 지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24년 동안 현장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며 노력해 온 이주는 팀장의 박사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공직자들도 끊임없는 연구와 실천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관계성 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맞손'

도·전북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전북경찰청과 전북특별자치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가 스트로킹·교제폭력·가정폭력·학대 등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세 기관은 25일 전북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성 범죄 행위자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관계성 범죄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지속적인 관계와 재접촉 가능성이 높아 범죄 발생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연계해 범죄행위자의 상담·치료·교정 및 사회복지계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 범죄행위자 상담·치료·교정·사회복지 지원, 정신건강·중독·가족 문제 맞춤형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 공유 등이다.

특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법무보호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사전상담과 심리상담을 비롯해 취업·주거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안정적인 사회복지장을 돕기로 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계성 범죄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대병원 박준홍 교수, 임상유전학인증 자격 취득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충철) 진단검사의학과 박준홍 교수가 대한의학회유전학회에 부여하는 '임상유전학인증' 자격을 취득했다.

전북대병원은 박준홍 교수가 임상유전학 분야의 전문성과 임상 경험을 인정받아 해당 자격을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상유전학인증의는 유전질환과 희귀질환을 비롯해 암 유전학, 착상전 유전진단 등 임상유전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다.

대한의학회유전학회가 1년에 한 차례 엄격한 심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며, 현재 국내에서 해당 자격을 보유한 전문의는 10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교수는 이번 자격 취득을 통해 임상유전학 분야의 전문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서 축적해 온 유전검사와 분자진단 분야의 전문성을



비탕으로 유전·희귀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유전정보를 활용한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유전체 분석과 분자진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유전질환과 희귀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고 암의 유전적 특성에 따른 환자별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전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임상유전학은 검사 결과를 단순히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의 임상 증상과 가족력, 유전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분야다. 이에 따라 유전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실제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박 교수의 임상유전학인증의 자격 취득을 계기로 병원 내 임상유전 및 유전검사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전·희귀질환의 진단 역량을 높이고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기반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고창부안축협, 신규 조합원 역량강화 교육

고창부안축협(조합장 오교을)이 지난 21일 고창한우명품관 2층 연회장에서 '2025년 가입한 신규 조합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5년 축협에 새로 가입한 신규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신규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조합원으로서의 구체적인 역할과 권리를 정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강에는 농협 구례교육원 기영운 원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강연을 펼쳤다. 기 원장은 협동조합의 기본 개념과 진정한 의미, 조합원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 그리고 축협과 조합원 간의 상생 발전 방향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오교을 조합장은 "바쁜 축산 현장 속에서도 교육에 참석해 주신 신규 조합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어려운 축산 환경 속에서 축협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는 한편, 축협 사업 이용 등 조합원의 의무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조합원과 축협이 한마음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함께 발전하는 고창부안축협을 만들어 나가시길 당부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신규 조합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의 주체로서 조합원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 고창부안축협의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합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 동충동 통장협의회, 청렴 실천 다짐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미라)는 25일 동충동 통장협의회와 함께 청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생활 속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미라 동장과 통장협의의 장금례 회장을 비롯한 통장과 직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나누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동충동을 만들기 위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며, 주민과 행정을 잇는 통장의 역할을 되새기며,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열린 통장협의회 회의에서는 주요 시정과 동정 소식을 안내하고, 동충동의 주요 현안과 주민 불편 사항을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장금례 회장은 "청렴은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기본"이라며 "통장협의회도 주민과 행정을 잇는 역할에 충실하며 생활 속 청렴 실천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미라 동장은 "항상 주민 가까이에서 힘써 주시는 통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통장협의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주민에게 신뢰받는 동충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마지파 정음교회, 지역사회 봉사잇따라



신천지 도마지파 정음교회(신천지 정음교회)성도들이 지난 18년간 총 748회의 봉사활동을 이어왔고, 누적 참여 인원은 4490명, 수혜 주민은 7400명에 이른다.

눈에 띄는 것은 규모보다 지역사회의 필요가 있는 곳을 지속적으로 찾아하며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음교회의 활동은 보훈 현장에서부터 이어졌다. 산내면 무명 전몰 용사 추도식에서는 생화제와 대추치를 나누는 등 보훈 관련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에는 세계 월남 참전 전우 한국총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전통시장 봉사는 정음교회의 대표적인 장기 프로젝트다. 교회 측은 인절미 만들기, 옛치기 행사,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장바구니 나눔 등 상인들과 장터 방문객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중 지속해 왔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면 봉사와 집합 활동이 어려워지자 방역 물품 지원과 비대면 물품 전달 생활밀착형 방역 활동 등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봉사를 전환했다.



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인 점검과 소통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일자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